

지역 매아리

NH농협 부안군지부 준공식 개최

NH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배인태)는 최근 부안군 봉덕리에 새를 지리 잡은 부안군지부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대훈 농협은행장, 유재도 전북지역본부장, 김장근 전북영업본부장 등 내빈 150명이 참석해 부안군지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했다.

부안군지부는 1961년 개업 이후, 부안군민과 농업인의 실익향상과 금융서비스 제공에 앞장섰으며 이번 신축을 통해 보다 향상된 양질의 금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축 건물은 대지 385평, 지상3층, 연면적 280평규모로 지난 1월 착공하여 9월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을 부안군 근농장화회에 기부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념 축사를 통해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민의 금융편의증진을 위한 농협은행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부안군지부의 힘찬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이번 신축을 통해 부안군민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지역맞춤형 은행, 공익실현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역광장서 '오감만족 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개최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공동체협의회(회장 유인필)가 주관한 제10회 공동체 어울림 한마당이 정읍역 광장에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10회를 맞은 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락메지기, 광 앉는 옷놀이 등 이벤트·공동체 상품판매·7000 라이브 통기타 등 문화공연·먹거리장터·노래자랑 등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행사에는 50개의 지역공동체팀과 20개의 사회작업, 마을기업 등의 업체가 참가했다.

시민 1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체험과 문화공연 등을 즐기며 가족과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 역광장 인근의 상가들은 행사 기간 동안 상가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행사를 찾은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앞장섰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청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공동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협력 통한 서원문화 세계화”

유진섭 정읍시장,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 참석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난 20일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에서 열린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선포식에 참석, 서원 문화 발전과 지역 간 소통과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9개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 서원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서원이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9개 서원이 힘을 합쳐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힘을 모으고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이를 국내외에 공식 선포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난 20일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에서 열린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선포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해 마련됐다.

선포식에는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과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경과보고, 등재선언, 기념사, 기념

패 전달, 표지석 제막식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정읍의 무성서원은 1100여년의 시간을 품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최고급 쌀 생산 위한 수매 관련 협의회 가져

정읍시가 전국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수매와 품질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본격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행정과 농협, 검사원, 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단종미인 쌀 수매 관련 기관 협의회를 가졌다.

제2차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먼저 단종미인 쌀 등급 수매 검사원(5명)을 위촉했다.

이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단종미인 쌀의 품질향상 방안과 수매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에 위촉된 검사원들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벼수매 경력이 있는 검사원들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등급 판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종미인 쌀 수매 검사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3단계에 걸쳐 실시하며 단계별 합격판정을 받아야 산물 벼 수매에 참여 가능하다.

1단계에서는 현지 포장 검사를 통해 타 품종 식재와 도복, 병해충 발생 등을 검사해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2단계는 농기별로 채취한 샘플 시료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단

백 함량이 6.0% 미만인 경우만 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또한, 3단계는 산물벼 종실검사를 통해 타 품종 유입과 피해입, 작해입, 이물 등 품위검사를 실시해 1등 이상 고품질 벼로 합격한 단종미인 쌀만 전용 싸이로 저장 시설에서 관리하게 된다.

한편, 올해 단종미인 쌀은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5개 단지 804ha에서 조곡 5,628톤을 수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종미인 쌀 품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단종미인 쌀 명성에 맞게 철저히 검사해 정읍 쌀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성공 위해 힘모은다

고창군·전북도·행안부 등 6개 기관·단체 업무분담 협약체결

고창군은 지난 20일 오후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허태영 전라북도 문화관광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협력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력식은 온천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체계 구축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전북도, 고창군, 한국온천협회, 대한온천학회, 한국관광공

사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전북도는 온천대축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행사진행·홍보 등 축제 전반은 고창군이 주관한다. 한국온천협회와 대한온천학회에서는 온천발전 심포지엄을 주관하고 사진전 등 각종 이벤트와 심포지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온천대축제 개최를 계기로 석정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고창의 뛰어난 관광자원과 연계해 나간다면 온천산업과

고창군의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정온천은 프랑스 루르드 샘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정받은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온천이다. 기존의 샘물로 불치병 환자를 치료한 프랑스 루르드 샘물보다 게르마늄 함량이 더 높다.

한편, 10월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고창석정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고창 석정온천으로 떠나는 따뜻한 가족 힐링 여행'을 주제로 온천수카데일쇼, 온천3종 경기, 패밀리 족욕 체험, 석정힐CC 마실길 걷기 등 각종 공연과 치유를 위한 체험행사가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은 대한민국 농식품의 천국'

군, 김인석 삼보죽업 대표 초청 포럼 성료

고창군이 지난 19일 오후 동라국악당에서 김인석 삼보죽업 대표와 함께 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 4번째 시간을 진행했다.

김인석 대표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장인정신으로 올바른 식품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의 것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알려나가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무조건 소금을 적게 먹게 아니라 질 좋은 소금을 적당히 먹어야 한다"며 "죽업은 나트륨 함량이 적은 데다 갈슘·마그네슘·철·망간·인·유황 등 인체 건강에 꼭 필요한 각종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이로운 새로운 소금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오랜 시간을 할애해 고창 소금의 장점을 이야기 했다. 앞서 지난 5월 고창해리농협은 고창소금(천만금) 5톤 미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불순물이 많은 값싼 수입 천일염에 비해 고창천일염은 미네랄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다. 특히 송화기루가 만만 5월의 천일염은 보물이 따로 없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역 주민들이 고창의 것을 아끼고 애용하려는 노력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외식 시장과 간편식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죽업을 포함한 고급 천일염으로 시장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지리산 천일염의 음식 유산인 고창소금을 아끼고 사랑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인문학 도시 고창군'은 평생교육, 정책포럼,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배우고 즐기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4월부터 군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은 오는 10월 방송인 이호선 교수(행복)의 강연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 19일 고창군청에서 모양성제 추진상황 보고회가 열렸다.

전국 최고 민속축제 고창모양성제 준비 착착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축제인 '고창 모양성제'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정토진 부군수 주재로 모양성제추진위원회와 각 과·관·소 주무팀장, 고창읍부읍장 등이 참석한 '제46회 고창모양성제 추진상황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선 담당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모양성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제46회 고창모양성제'는 '역사는 미래다'를 주제로 10월3일부터 닷새

간 고창읍성 주변에서 열린다. 올해 모양성제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고창읍성 축제를 참여했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 등 17개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축성참여 고을기 울림으로 시작된다.

특히 주·야간 답성놀이, 강강술래, 공성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어 대한민국 가을 대표축제의 면모를 과시할 예정이다.

이날 정토진 고창부군수는 "마흔여섯번째를 맞은 올해 축제를 군민 참여 축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like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and 'GIFT SET 7세 | 375ml 2ea/13%'. Contact info: TEL: 063-584-9960 www.gangsanwine.com